

# 만성지구 대규모 공영주차타워 조성한다

### 전주시, 조성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2026년까지 161억원 투입 주차대수 224면 조성 추진

전주시는 전주 만성지구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만성지구 (주9, 만성동 1346-1번지) 공영주차타워 조성 설계를 위한 설계 공모의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선작은 (주)에스케이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제안한 '전주시 시화 개나리를 모티브로한 개화(開花)' 작품으로, 대지 주변 현황을 잘 고려해 부지 특성상 삼면이 도로에 접한 면을 활용한 공간 배치를 제시한 점과 증축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다.

특히 차량 및 보행인의 진출입 동선 배치 및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지난 19일 열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전주시는 만성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의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비 161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5단에 건축면적 8,109㎡, 주차대수 224면의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된 만큼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뒤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만성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위해 지난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건축위원회 심의, 일상 감사, 원가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삼규문 대중교통본부장은 "이번 설계 공모의 당선작은 기존 주차타워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의 활기를 반영하는 생동감 있는 신개념 주차공간으로 제안됐다. 공영주차타워가 향후 만성지구 내 주차환경 개선은 물론, 전주 북서부권 만성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은 25일 도로교통공단 전북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안전운전 인증 획득 협력

### 전주시설공단-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공단은 25일 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부(지역본부장 기용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협력 △공단 차량 운행의 교통 안전성 향상과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운전 인증 획득 협력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협력 등이 협약의 골자다.

특히 공단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 중인 안전운전 인증 획득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운전 인증은 운전원별 운행

안전 진단 등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그 성과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이 진단하고 심의해 교통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공단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택시 58대와 전용 임차 택시 25대, 어울림 순환버스 4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특장 플랫폼을 5대 증차할 예정이다. 또 도심 외곽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위해 마을버스 총 29대를 운행 중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운전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지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운수종사자·시민 휴식 위한 '교통안전 쉼터' 준공

### 공중화장실도 24시간 운영

전주시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인 교통안전 쉼터를 중노송동 병무청오거리 인근에 조성했다.

앞으로 교통안전 쉼터는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사용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돕고, 오가는 시민들의 쉼터로도 사용된다.

전주시는 주변 경관을 해치던 폐가였던 완산구 중노송동 547-10(병무청



오거리 인근)의 부지를 매입, 철거하고 이날 운수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과 휴식을 위한 '교통안전 쉼터'로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곳은 운수종사자와 시민이 잠시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16㎡(약 5평) 규모에 의자와 테이블, 정수기, 냉·난방기, 휴대전화 충전시설, CCTV, 출입관리시스템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개방된다.

또 시는 쉼터와 함께 24시간 개방하는 공중화장실도 설치했다. 쉼터 주변에는 남원·임실·순창 방향의 시외

버스 정류장이 위치한다. 시외버스 종사자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택시종사자, 또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쉼터 주변을 찾는다. 이번 24시간 개방되는 공중화장실 설치로 운수종사자와 시민,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 및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앞으로도 택시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추가 사업지를 선정해 쉼터를 지속해서 늘려갈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3건 안전 의결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등 촉구

도내 시·군의회의장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과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규제 완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및 운영을 촉구했다.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에 이기동 의장)는 25일 순창발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제282차 월례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과 '인구감소 지역 산지전용 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 건의안 등 3건의 안전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

체 형편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체 면적의 57%가 산지로 둘러싸인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이용해 조경수 및 유실수, 임산물 등 고소득 작목 개발로 농업인의 이농을 줄이고 도시의 젊은 창업농을 유입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임업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 면적 3만㎡ 이하에서 5만㎡이하로 확대, 조경수, 임산물 등 소득작목 재배를 위한 산지전용 가능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완화, 지전용이 가능한 임목 축적량 기준을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 전용이 가능한 산지 표고를 해당산지의 50% 미만에서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과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다.

7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 지역 산지전용 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에 명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는 지방재정법 등에 발이 묶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선제적 시행 및 기후 위기 취약계층 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장들과 총선 당선자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제안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대중교통 냉온 편의시설 일제 점검·정비

전주시가 여름철 불볕더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내버스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 추진한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5월까지 유계승강장 897개소 및 버스 419대(시내 394대, 마을 25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한다

이런 점검 및 정비 대상은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승강장 내부 냉·온열의자 및 에어컨 등이다. 시는 냉방기기 작동상태 및 시내(마을)버스 내·외부 에어컨 필터 청소 및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총 1억4500만 원을 투입해 이용객들이 많은 승강장인 서신관지아파트 등 45개소에 에어컨

20개, 냉·온열의자 25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에어컨은 승강장 내부에 설치된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 5분간 작동 후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바람을 순환시킴으로써 대기 중 세균 온도를 낮추게 한다.

냉·온열의자는 외부 대기온도가 24도 이상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가동돼 의자 표면온도를 26~28도로 유지시켜 여름철 더위를 식혀준다.

시는 일제점검 및 편의시설 설치로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